

## 광주시-교육청-자치구, 전국 첫 '교육통합지원체계' 가동

### 광주교육협력추진단 출범...자치구별 교육 불평등 해소 민간전문가 참여 실무협의회 구성...의제 발굴·총괄 관리 강기정 광주시장 "G패스·지역돌봄·늘봄학교 등 긴밀 협의"

광주시는 '모두가 성장하는 광주 미래교육'을 목표로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을 위한 '교육통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광주광역시시는 4일 시청에서 강기정 시장, 이정선 교육감, 명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협력추진단' 출범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교육통합지원체계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자치구별로 교육 협력의지나 여건 등의 차이로 발생했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광주시-교육청-자치구의 광역단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협력사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체로는 최초다.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으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으로 매주 지역교육협력 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 15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 교육 협력체계를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은 시청 1층에 위치한 '빛고을 직업교육혁신지+ 자치구 지원센터'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광주교육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앞으로 두 기관 간 교육협력 강화와 광주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광주시-교육(지원)청-자치구 간 '교육통합지원체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협력기반을 다졌으며, 5월에는 '광주광

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광주교육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통해 광주시와 협력하며 협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치구 제안사항 등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이 구성됨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형 G패스, 지역돌봄, 늘봄학교, 학교시설 개방, 진로교육, 안전·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 주체들과 소통해 광주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2025년부터는 포럼,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매년 성과를 종합·분석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성과공유회도 함께 열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교육은 광주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다.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을 통해 그동안 형식화된 회의구조를 개선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며 "광주형 G패스, 지역돌봄, 늘봄학교 등 여러 현안을



광주광역시시는 4일 시청에서 강기정 시장, 이정선 교육감, 명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협력추진단' 출범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을 통해 그동안 형식화된 회의구조를 개선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며 "광주형 G패스, 지역돌봄, 늘봄학교 등 여러 현안을 긴밀히 협의해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이 지자체 협력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전남도, 여수석유화학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쟁결음



전라남도가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자체, 화학산업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자체, 화학산업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3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발전과 함께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고부가·친환경 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여수석유화학산단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전남 산업의 주축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및 중동의 공급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각국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제한 정책으로 기존 화학산업을 친환경 화학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전략 일환으로 정부로

부터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은 기존 석유화학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연료 등의 화이트바이오 산업과 친환경 화학산업으로 대표되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페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산업을 의미한다.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및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재편 활성화, 정부 및 지자체의 위기극복 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과 같은 고부가·친환경 화학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밸류체인 구축, 선도기업 투자유치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에 추가적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무안군 의회·전남도의회(나광국·정길수)